

이대은, 신인드래프트 1순위

(2019 KBO)

경찰야구단 소속 투수로 KT 위즈행



경찰청 야구단 소속인 이대은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서울에서 열린 2019 KBO 신인드래프트에서 KT 위즈에 지명을 받은 후 박수를 치고 있다.

프로야구 KT 위즈가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투수 이대은(29·경찰 야구단)을 지명했다.

2019 KBO 2차 신인 드래프트가 10일 오후 2시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올해 신인 드래프트 대상자는 총 1072명이다.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805명, 대학교 졸업 예정자 267명, 해외 아마 및 프로 출신 등 기타 선수 10명이 지원했다.

이번 드래프트는 1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 진행된다. 지명 순서는 2017년 성적의 역순인 KT-삼성-한화-넥센-LG-SK-NC-롯데-두산-KIA이며 라운드별로 구단당 1명씩 지명할 수 있다.

KT는 1라운드에서 예상대로 이대은을 선택했다. 이대은은 2007년 신일고를 졸업한 후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와 계약했다. 마이너리그에서 뛰면서 빅 리그 진출을 노렸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2015년부터 2년 간 일본 프로야구 지바 롯데 마린스에서 뛰었고, 2015년 '프리미어 12'에서 한국의 우승을 이끌었다.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도 활약했다.

이대은은 경찰 야구단에서 활약하고 있다. 올해 18경기에 등판해 5승6패 1세이브에 평균자책점 3.89를 기록했다.

삼성 라이온즈는 1라운드에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마이너리그에서 활약한 내야수 이학주를 선택했다.

한화 이글스는 경남고 내야수 노시환, 넥센 히어로즈는 불모어 오리올스 마이너리그 출

신 투수 윤정현, LG는 부산고 투수 이상영, SK 와이번스는 광주제일고 내야수 김창광, NC 다이노스는 장충고 투수 송명기, 롯데 자이언츠는 북일고 내야수 고승민, 두산 베어스는 부천고 투수 전창민, 지난해 통합 우승팀 KIA 타이거즈는 덕수고 투수 홍원빈을 1라운드에서 뽑았다.

2라운드에서는 KT가 경남고 투수 이정훈을 뽑았고 삼성이 신일고 포수 김도환, 한화는 광주제일고 내야수 유정혁, 넥센이 백송고 투수 조영건, LG는 서울고 투수 정우영, SK가 전 일본 독립리그 도쿠시마 출신의 투수 하재훈, NC가 부산정보고 투수 전진우, 롯데가 성

남고 투수 강민성, 두산이 서울고 포수 송승환, KIA가 성남고 투수 장지수를 선택했다. 이대은은 "첫 번째로 뽑아주셔서 감사드린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고, 팀에 필요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학주는 "삼성에 뽑히게 돼서 영광이다. 내년이 많이 기대가 된다.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 윤정현은 "열심히 하겠다. 넥센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다.

고졸 투기들은 저마다 내년 시즌 1군 무대에서 꼭 필요한 선수가 되겠다며 투지를 불태웠다. 이날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10라운드 동안 모든 선수를 지명했다. 100명의 선수들은 내년 시즌 프로 유니폼을 입게 됐다. /뉴시스

황의조, 칠레전 앞두고 "공격수라면 골을 넣어야"

"공격수라면 골을 넣어야 한다." 남아메리카의 강호 칠레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갯의조' 황의조(26·감바 오사카)가 골욕심을 드러냈다.

파울루 벤투(49)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11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칠레와 A매치를 치른다. 벤투 감독 선임 이후 두 번째 국가대표팀 간 경기다.

지난 7일 코스타리카와의 A매치에서 한국은 이재성(울수타인 킬)과 남태희(알 두하힐)의 연속골로 짜릿한 2-0 완승을 거뒀다.

황의조는 코스타리카전에서 교체 선수로 23분간 그라운드를 누볐다. 칠레와의 게임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황의조는 "공격수라면 득점에 대한 욕심은 항상 있다"면서도 "욕심만 내기보다는 팀 플

레이를 더 하겠다. 찬스가 나왔을 때 득점력을 최대한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아시아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자신감을 갖고 칠레전을 치르겠다. 두 경기 모두 승리했다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공격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감독님의 요구사항을 잘 따르도록 하겠다. 중앙뿐만 아니라 측면에서도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한다. 기회가 오면 득점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손흥민(26)과의 호흡에 대해서는 "아직 흥민이랑 특별히 이야기한 것은 없다. 그래도 워낙 오래 뛰어서 서로 원하는 플레이를 잘 안다. 서로 도와서 최선의 플레이를 할 수 있었으며 좋겠다"고 답했다.

/뉴시스



황의조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가 칠레와 평가전을 하루 앞둔 10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공식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우리가 최강이다...

원광대, 대학야구 U-리그 왕중왕전서 동국대 9대 6으로 꺾고 우승 차지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가 2018 KUSF 대학야구 U-리그 왕중왕전 결승전에서 동국대를 9대 6으로 누르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원광대는 충북 보은에서 열린 첫 경기에서 강릉영동대를 맞아 3대 2 역전승을 한데 이어 연세대와 홍익대를 각각 차례로 각누르고, 결승에 올라 지난 6일 동국대를 제압했다.

결승전에서는 1회에 선취점을 올렸지만, 3회 말 대량실점으로 어려운 경기를 펼치다가 연장 10회까지 이어진 접전 끝에 스쿼즈 번트로 역전에 성공, 권동진 선수의 3루타와 이상혁 선수의 안타로 2점을 더해 승리를 결정졌다.

원광대는 지난해 제5회 대통령기 전국야구대

회 우승 이후 1년 만에 토너먼트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토했으며, 3루수 권동진 선수는 6할 7리로 타격 1위, 7타점으로 타점 1위와 함께 대회 최우수상(MVP)까지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승리투수 강정현 선수는 3대 5로 끌려가던 6회 2사 후 마운드에 올라 4와 2/3이닝 동안 15명의 타자를 맞아 2안타 1실점만 내주는 뛰어난 투구를 선보여 박수를 받았다.

지난해 대통령기에 이어 우승을 이끈 손동일 감독은 "지난해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우승을 차지해 더욱 감격스럽다.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며, 선수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뛰어난 4학년 선수들이 다수 졸업하지만, 남은 선수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내년에도 강팀의 자존심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익산=우병희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실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사 하지원